

「靑年」(1921-1940)에 나타난 여성관과 기독교윤리적 의미*

이장형 (백석대학교, 교수)

안수강 (백석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여성의 지위향상
- III. 여성의 직업선택과 사회진출
- IV. 결혼과 가정
- V. 유소년 성교육 및 태아의 성별 조작 문제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7.14>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0568)

• ABSTRACT •

A Study on the View of Women and Christian Ethical Meanings in
YMCA's Journal "The Young Man"(1921-1940)

Professor, Lee, Jang-Hyung (Baekseok University)

Lecturer, Ahn, Su-Kang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view of women described in "The Young Man," the journal published by YMCA, and analyzed improved women's status, career choices and social advancement, marriage and family, and sexuality educ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t should be noted that several compelling articles were written and spread during the period "The Young Man" when even women's basic rights could not be secured. The first issue repeatedly put forward in the journal was an improvement in women's status, which included the advancement of women in industrial and commercial sectors and their financial independence, elimination of the idea of men's superiority over women, promotion of women's education, frugal living and clothing of female teachers. The second issue the journal often dealt with was related to women's career choice and social advancement, which comprehensively covered gender equality, improvement in women's rights, instilling a sense of mission in women, ministry opportunities for women, diverse career choices and social advancement, elimination of the distorted Confucian culture and system. The third issue frequently brought up in "The Young Man" was relevant to marriage and family, which found expression in addressing difficult problems such as family instability, abandonment, conflict, divorces, preparation for marriage as a sacred covenant, realization of an ideal family, and appropriate age for marriage. The fourth issue coped with sexuality educ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hich focused on a balanced gender ratio, sexuality education for children by parents, teachers, and school doctors, sexuality education for parents and teachers, and the adoption of sexuality education curriculum in schools.

Key words: YMCA, "The Young Man", Young People, View of Women, Women's Status, Women's Social Advancement,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와 1930년대 YMCA 기관지 「青年」에 나타난 다양한 주제의 글들 중 여성 관련 글들을 중심으로 당대 여성관과 기독교 윤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직업선택과 사회진출, 결혼과 가정, 유소년 성교육 및 태아의 성별 조작 문제 등 네 분야의 하위주제들을 설정하여 원자료 「青年」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며, 현재적 함의를 숙고하여 오늘날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과제 제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青年」잡지의 발간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914년 9월부터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현 서울YMCA)에서「中央青年會報」란 제호의 잡지를 발간했는데 YMCA 회보와 유사한 성격이었다. 그러다 1921년 3월부터 제호를 「青年」으로 전격 교체하고 중앙청년회와 조선기독교청년회 연합회(현 대한YMCA연맹)의 연합사업으로 발전하면서 회보의 성격을 넘어서서 월간 종합지로 발행되었다. 장로교 제4대 총회장을 역임했던 김필수는 창간호 서문을 통해 회황보고(會況報告)뿐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추이하여 기독교주의를 민족의 문명 향상적 선도하기 위함의 소이(所以)로다.”¹⁾라고 피력하여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계몽운동과 문명의 향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青年」에는 국제 YMCA 동향과 국내외 정세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예술, 삶 등 여러 면에서 시대를 선도하는 담론들이 게재되었으며 직업훈련을 비롯하여 사회 계몽운동, 교육의 활성화, 민족운동, 농촌운동, 여성운동, 체육 분야 등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青年」은 1940년 12월 일제의 압력으로 폐간될 때까지 약 20년에 걸쳐 발행되었으며,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민족계몽

1) 김필수, 「「青年」發行的 首辭,」 「青年」 창간호(1921), 1.

운동과 청년운동을 이끄는 지식 및 신앙계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다. 판매 정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지만 창간호 뒷부분 서지정보의 공지에 의하면 한 부당 정가는 20전(錢), 반년 분(6부)은 일원(圓), 일년 분 12부는 2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중앙기독교청년회 청년잡지사에서 발매했고 경향(京鄕, 서울과 지방) 각 점(店)에서도 판매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방 전 YMCA에서 1920년대 문화정치기와 1930년대 전시체제를 거치며 근 20년 간 꾸준히 출판하여 보급된 기관지 「靑年」을 고찰하여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 측면에서 여성관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분석할 것이며 한국적 기독교윤리학의 정립과 토착화 담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물론, 현대신학적 관점에서 「靑年」에 실린 글들을 평가한다면 당시의 신학적, 기독교윤리학적 논의들이 논리적 체계성도 부족하고 한국적 신학사상이라기보다는 성경을 강해한 교양서적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서양 기독교사상과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문자적 해석을 기한 문헌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수준에서 볼 때 일제강점기의 체계화되지 못한 문헌이라고 해서 진부한 주제로 평가 절하될 우려가 있으나 본 연구자는 이 작업이 오늘날 여성운동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의 60~70퍼센트에 달하는 해독하기 어려운 한자로 기록된 원문을 세세하게 탐독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원문을 인용하여 소개할 때는 각별히 가독성을 고려하여 모든 한자를 한글로 변환했으며 용어의 의미상 한자를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괄호로 처리하여 병기했다.

지금까지 YMCA의 기관지 「靑年」과 관련하여 발표된 선행연구 논문들은 이장형의 “「청년」 문헌해제 및 신학적, 기독교윤리적 의미”(2023)²⁾와

2) 이장형, “「청년」 문헌해제 및 신학적, 기독교윤리적 의미,” 『기독교사회윤리』 55(2023),

안수강의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青年」(1921-1940)을 중심으로”(2022)³⁾ 등 2편이 발표되었다. 이장형은 「청년」 문헌해제, 일제강점기 「청년」 발행의 역사적 의의, 「청년」 발행의 신학적, 기독교윤리적 의미를 살폈다. 안수강은 창간호에 실린 글(신흥우, 홍병선, 이대위, 안국선, 강매, 윤치호, 송진우, 장웅진, 임경제, 정대현 등) 분석, 기독교청년회의 노선과 정신, 실천적 교훈과 함의를 논했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연구가 추진되지 않은 1920년대와 1930년대 YMCA 기관지 「青年」에 나타난 여성이해 및 그와 관련된 한계점들, 기독교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당대의 여성에 관련된 글들을 분류하면 주목할 만한 하위주제들로서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직업선택과 사회진출, 결혼과 가정, 유소년 성교육 및 태아의 성별 조작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II. 여성의 지위향상

「青年」에 수록된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논점들은 1920년대 이대위의 “女子의 經濟的 獨立”(1922년 1월), 장웅진과 송진우의 “男女交際에 對한 名士의 竟見”(1921년 창간호), 장웅진의 “男女交際에 對한 名士의 竟見”(1921년 창간호), 익명의 젊은 여성 교원(一女敎員)이 기고한 “女敎員의 外華”(1926년 2월) 등에서 두드러진다. 이대위는 여성들이 실업계에 진출하여 경제적 독립을 획득할 것을, 장웅진과 송진우는 남존여비 사고 타파와 여성교육을, 무명의 여성 교원은 여성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교사들의 검소한 생활과 옷차림을 강조했다.

265-288.

3) 안수강,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青年」(1921-1940)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9(1922), 631-667.

첫째, 이대위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은 이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실업계에 진출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만성적인 양대 병폐들로서 노동문제와 부인문제(여성문제)를 들었다. 이 양대 사안들 중 노동문제는 근세기 들어 상당부분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에 비해 여성 인권신장은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진단했다.⁴⁾ 무엇보다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실업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고대 중국은 모계사회였으나 남성들이 점차 전쟁, 약탈결혼(납치결혼), 농경생활사를 주관하면서 부계사회로 전환되었다고 파악했다.⁵⁾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남성들의 건장한 완력(腕力)에 단초를 둔다. 그는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도 얼마든지 남성들과 더불어 산업전선에 함께 진출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참정권(參政權)까지도 획득할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소신을 보여주었다.⁶⁾ 이대위는 기독교면려회(CE) 기관지 『眞生』에도 “吾人の 理想하는 今後 朝鮮의 女子運動”(1929년 11월)을 기고하여 옛 시대는 남성들이 이끌었지만 당대는 여성들이 약진해야 할 시대라며 한국기독교계에서 여성운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여성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시의성 있는 전략으로 “고상한 이상을 정립할 것, 이성적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것, 여성 교육사업을 마련할 것, 여성들이 남성들과 더불어 협동운동을 추진할 것 등”⁷⁾을 제시했다.

둘째, 유교의식으로 각인된 남존여비와 부부유별(夫婦有別)이라는 만

4) 이대위, “女子의 經濟的 獨立,” 『青年』 2/1(1922), 6.

5) 위의 글, 7.

6) 위의 글, 9-10.

7) 이대위, “吾人の 理想하는 今後 朝鮮의 女子運動,” 『眞生』 5/9 (1929), 2-6.

성화된 사고를 타파해야만 여성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다고 했다. 본래 유교의 부부유별 개념은 사대사상(事大思想)에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지 아버지를 큰 자로 여겨 하늘에 비유하여 섬김을 받는 위치에, 아내는 작은 자인 땅에 비유하여 섬기는 자로 간주했다. 유교에서 규정한 부부 간의 윤기는 땅이 하늘을 섬기듯 아내는 지아버를 섬겨야 한다는 사대사상이라는 절대적인 명분과 가치관에 귀속된다.⁸⁾ 휘문고보 교사 장응진과 중앙학교 교사 송진우는 「青年」 창간호에 수록된 “男女交際에 對한 名士의 竟見”에서 남녀의 조화와 일체를 강조하여 남성과 여성이 직업을 공유하여 분담해야 하고, 남녀 모두 책임의식을 반분(半分)해야 하며, 문화의 촉진·인격평등·바람직한 이성교제·윤리의식 고취 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一) 양성(남성과 여성-연구자)의 조화니 (중략) 남(男)의 강(強)과 여(女)의 유(柔)가 서로 감화를 급(及)하며 화기(和氣)를 발하여 원만한 사회가 현출(現出)될 것이며 (二) 문화의 속진(速進)[빠른 진보-연구자]이니 개성의 발달은 인류의 중대한 문제이다. (중략) 도덕의 발전이 진보하고 문화의 범위가 확대된 현대에 처(處)하여야는 성인(聖人)이 복기(復起)하셔도 남녀교제를 정론(正論)이라 하겠지요.⁹⁾

각기 사회의 일원으로 천직(天職)을 수(遂)하며 업무를 분담함에 대하여는 (중략) 사회를 완성할 반분(半分)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디하면 그 여반(餘半)의 책임은 여자에게 잇슴을 도리 상 긍정치 아니할 수 업습니다. (중략) 지방 교회에서 지금까지 남녀석을 격리하였든 장막을 철폐하는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분의(紛議)가 싱겨서[생겨서-연구자] 썬든다는 말을 풍편(風便)에

8) 안수강, “이홍주(李泓周)의 도덕관 분석-그의 良心의 威力(1922)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2020), 139.

9) 송진우, “男女交際에 對한 名士의 竟見,” 『青年』 1/1(1921), 20.

들었습니다. (중략) 남녀의 절대평등 여자의 해방을 주장하는 그 교지(敎旨)와 모순됨이 업슴닛가.¹⁰⁾

셋째, 여성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고양할 것을 촉구했다. 장응진은 “男女交際에 對한 名士의 竟見”을 통해 여성교육의 당위성을 피력했으며 교육이야말로 여성의 지위를 신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이 남성과 더불어 동등한 지위에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집’(家, 宅)이라는 획일화된 울타리를 벗어나 활동영역을 외연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로, “출가외인, 집사람, 안사람, 안방마님, 〰〰댁(宅), 바깥어른, 내외지간, 외가, 외삼촌, 외조부, 외조모, 가정주부 등”¹¹⁾의 칭호들도 집을 활동범주의 기준으로 삼아 안과 밖을 규정한 데서 파생된 용어들이다. 장응진은 여성의 지위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 습관과 인품, 사상과 지식, 남녀교제 등을 장려해야 하며 가장 적합한 대안은 교육이라고 했다.

일반여자의 개방은 물론이어나와 청년 여자에 대하여서도 전일(前日)과 가튼 밀봉주의(密封主義) 활동 영역을 집안으로 제한하는 사고-연구자 쥐를 타파하고 엇더한 방면에든지 남자와 비견하여 접촉 활동을 할 만한 능력과 습관을 점차로 길너야 할 것이요, 그리하랴면 여자로 하여곰 차(此)에 감당할 만한 인격과 사상과 지식을 가지게 함이 선결의 문제인즉(則) 금일 사상 말정(未定)의 청년 남녀에 대하여 자유교제를 설법(說法) 혹 주장할 여가가 있는 이어든 몬져 그의 교육 수양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의 청년 남녀로 하여곰 진정한 교제의 기회가 일일(一日)이라도 속히 실현하도록 노력함이 우리 사회에 대하여 충실한 공헌이 안일시(아닐까) 연구자 쥐 합니다.¹²⁾

10) 장응진, “男女交際에 對한 名士의 竟見,” 『青年』 1/1(1921), 21.

11) 안수강, “1920년대 초 강두송(姜斗松) 목사의 여성인권 신장에 관한 담론 분석: 그의 “婦人問題”(1922)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59(2021), 186.

이 여성교육론은 기독교면려회 기관지 「眞生」에서도 의미심장한 논지를 발견할 수 있다. 김지환은 “女子教育에 對하여 一言”(1929년 11월)에서 사회진보의 일환으로 여성들을 교육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지방에 흩어진 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 특히 시골에서 성장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속한 여성들을 주목했으며 남성들뿐만 아니라 불우한 여성들에게도 소정의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넷째, 여성의 이상적인 지위향상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조명한 견해도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젊은 여성 교원은 “女敎員의 外華”에서 여교사들은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하는 위치라는 점을 명심하여 검소한 생활과 옷차림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며 존경 받는 교사, 제자들에게 사표가 되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¹⁴⁾ 외화란 화려한 걸치레를 가리키며 경건한 속사람과 대비되는 외식(外飾)의 개념이다. 그는 교육의 장에서의 진정한 계급 혁신과 차별 철폐는 외화를 지양하는 모범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러한 예법은 학교와 가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차별 많고 계급 만원[많은] 연구자 주 조선이기로 한 가정에까지 그러케 누구는 왕후 갖치 꾸미고 누구는 행낭(行囊)이 멍 갖치 차릴 것이 무엇이 란 말이요.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부터[가정에서부터] 연구자 주 계급과 차별을 철폐하여야겠습시다. 집 한 간이 업어서 남의 세집으로는 땀길망정 거처와 음식은 망척할지언정 오직 외화만 썩썩하게 하고 땀기면[땀드르]하게 잘 꾸미고 다니면 연구자 주 누구가 그리 숭배하고 쳐다보는 줄 압니까.¹⁵⁾

12) 장웅진, “男女交際에 對한 名士의 竟見,” 22.

13) 김지환, “女子教育에 對하여 一言,” 「眞生」 5/9(1929), 25-28.

14) 일여교원, “女敎員의 外華,” 「青年」 6/2(1926), 30.

15) 위의 글, 32.

참고로, 1894년부터 3년 어간 한국을 네 차례 방문하여 약 1년 동안 한반도와 시베리아까지 한국인들의 실생활을 면밀하게 탐방하여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을 저술한 비숍(Isabella B. Bishop) 여사가 있다. 그는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비천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러한 차별을 필연적 운명인 것으로 수용하여 체념한다고 했다.¹⁶⁾ 그는 한국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갖가지 험난한 고충들로서 세탁 일, 식탁 준비, 논밭을 일구어야 하는 힘에 벅찬 농사일, 추수와 곡식탈곡, 물 길기, 바느질과 베틀 작업, 막노동에 시달리는 며느리의 한 많은 시집살이, 급속하게 늙고 퇴화되는 육체, 문맹의 한,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절개(정절), 축첩(蓄妾) 제도 등을 열거했다.¹⁷⁾ 이러한 시대적 질곡에 주목하여 「靑年」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담론을 깊이 있게 전개했다. 이를 위한 실천 강령으로서 실업계 진출을 통한 경제적 독립 획득, 남존여비 사고 타파와 여성교육의 활성화, 여성교원의 도덕성 추구 등에 큰 관심을 표했으며 여성의 사회적 신분 고양과 아울러 내면적 도덕성을 논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대위, 장웅진, 송진우 등의 글이 발표된 비슷한 시기에 강두송은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 “婦人問題”라는 제하에 여성인권에 관한 주제로 설교문을 게재했다. 그는 1920년대 여성 인권문제들과 실천방안을 제시했으며 혁파해야 할 병폐들로서 “남편의 아내 하대(下待), 고착화된 오이코스 사고, 여성교육의 제한, 여성 퇴폐문화 등”¹⁸⁾을 다루었다. 그의 논지는 큰 틀에서 이대위, 장웅진, 송진

16) Isabella B.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서울: 도서출판살림, 1999), 143.

17) 위의 책, 392-397. 명 태조 주원장은 1368년 ‘여계’(女戒)를 공포했는데 약혼한 남자 혹은 남편과 사별한 경우 여성은 일생 수절 혹은 자진(自盡)할 것을 장려했다. 이는 부부 사이의 수직적 사대사상을 강요한 극단적인 사례이다. 田汝康, 이재정 역,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서울: 예문서원, 1999), 17-19. 한국 역시 정절을 논할 때는 남성 측이 아닌 여성 측을 주목하며 열녀문은 철저하게 남존여비 사상을 적용한 산물이다.

우 등의 식견과 일맥상상에 있다.

III. 여성의 직업선택과 사회진출

김일제는 1922년 12월 28일에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연설한 “現代와 女子의 使命”을 정선하여 「青年」 제3권 제2호(1923년 2월)에 수록했다. 그는 이 글에서 남녀의 평등성에 주안점을 두어 여성의 인권 고양을 논했다. 글 주제에 구사된 ‘사명’이란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신껏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축한다. 이 사명은 단순하게 경제적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업’(業)으로서의 ‘business’나 ‘occupation’이 아니라 보람과 가치를 지고의 선으로 여기는 ‘직’(職)으로서의 ‘vocation’ 혹은 ‘profession’을 가리킨다.¹⁹⁾ 김일제는 고대(古代)는 힘의 논리에 의해 남성이 완력으로 지배하던 시대로 정치, 종교, 사회 등 모든 조직체제가 남성의 우월성을 전제하여 제창되었으며 그 결과 법률, 도덕, 풍속, 관습 등 전 영역이 남성 중심 일반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이로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려왔으며 제사, 유산상속, 가정경제 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근세 들어 가장 위대한 발견과 지고의 행복은 남녀가 공히 평등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각성한 점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공생애 기간에 남존여비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셨고 결혼, 정조, 경제생활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남녀의 인격평등을 선포하셨다고 피력했다. 그는 1920년대 당대에 추구해야 할 가장 절박한 사회개혁 과제는 ‘최대최절(最大最

18) 강두송, “婦人問題,”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京城: 活文社書店, 1922), 43-57. cf. 안수강, “1920년대 초 강두송(姜斗松) 목사의 여성인권 신장에 관한 담론 분석: 그의 「婦人問題」(1922)를 중심으로,” 169-208.

19) 장원중, 김동현, 이한구, 『職業과 倫理』(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37.

切: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함)이라는 용어를 구사하여 ‘부인문제’ 즉 여성문제라고 단언했다.

모든 처위(處位) 중의 최대(最大)한 자는 인격평등주의인 줄을 각(覺)한 것이 곧 현대인의 최대 발견인 동시에 최대 행복이 될 것이다. 현대사상의 요소를 활(撮)하면 취하면 연구자 주 공존, 공평, 협동이다. 개인으로든지 사회로든지 국가로든지 급지(及至) 세계까지 근일 소위 하(何)문제-라는 것이다. (중략) 그 중 최대최절(最大最切)한 문제가 즉 부인문제이다. (중략) 1,9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남존여비의 사상을 타파하고 인격평등의 진리를 절대로 창도(唱道)하였다. (중략) 혼인에 대하여도 절대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정조에 관하여도 결코 여자에게 편중하게 시(視)치(치)마라보지-연구자 주 아니하였다. 또한 물질적 경제력으로써 남녀의 경중을 별(別)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 정신을 귀중 시(貴重 視)하였다.²⁰⁾

「青年」에 게재된 여성을 주제로 한 첫 논지는 강매의 “女子問題의 根本的 解決”(1921년 6월)에 나타난다. 이 글은 여성의 적성에 따른 직업선택과 사회진출에 대해 종래 유교사상이 창출한 남녀차별을 타파하고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강매는 산업혁명 이래로 전 세계가 경제, 사회, 교육 등 제반 영역에서 급격한 진보를 이룬 시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역시 여성의 직업과 사회진출에 대한 각성이 절실한 때에 직면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산업 상 혁명, 경제상태의 변화, 사회의 진보, 교육의 보급 등 제반 사실은 부인(婦人)의 각성과 공(共)히 진전하여 근대 부인들이 점점 가정 외의 직업(바깥 일-연구자 주)을 구하게 된 것은 현대생활의 특징이라 할 것이올시다.”²¹⁾

20) 김일제, “現代와 女子의 使命,” 『青年』 3/2(1924), 7-8.

21) 강매, “女子問題의 根本的 解決,” 『青年』 1/4(1921), 2.

강매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들에게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선택하는 일과 사회진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첫째, 강매는 변화무쌍한 시류를 짚은 후 생활의 전반에 걸쳐 많은 혁명적 변화가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체질과 능력 등을 문제 삼아 여성의 직업선택과 사회진출에 무관심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여성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체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남자와 차이를 보였던 것은 남성의 할 일과 여성의 할 일을 획일적으로 분업화함으로써 직업을 고착화시킨 산물 때문이라고 했다. “남자와 여자 간에 신체이던지 심리이던지 점점 차이를 발생케 된 것은 그들의 분업[남녀의 할 일 구분-연구자 주]이 그들의 근본적 체질적 성향에 종(從)하여 분리한 경향으로 발전한 결과에 불외(不外), 어떤 범위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함-연구자 주)하다 할 것이외다.”²²⁾

둘째, 여성들의 다채로운 직업선택과 사회진출이 불가피하게 불안정한 과도기적 현상을 거칠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 기간 시행착오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했다. 강매는 이러한 한시적 역경을 염두에 두어 당대를 ‘시험시대(試驗時代)’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면서도 과도기 이후의 미래지향적 성취를 낙관했다. “여간(如干)의 실패자와 희생자를 출생한다 할지라도, 이는 공포(恐怖)할 바 아니오 여하한 방면에서던지 그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함을 득(得)하며 자기의 표현함을 득(得)해야 (중략) 여자 자신으로 하여금 시험하게 함이 적당하다 할 것이외다.”²³⁾

22) 위의 글.

23) 위의 글, 3.

셋째, 500년 이상 한국에 착근한 유교이념과 제도적 장치로 인한 남녀 차별이 여성들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매는 고려 말부터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교사상이 정치와 법 체제를 주관하여 여성들이 자신과 사회를 위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기회균등’을 상실하는 독소로 작용했다고 단언했다.²⁴⁾ 「靑年」이 보급된 1920년대는 종래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관철되었던 신분제 혁파에 큰 진전이 있었고 여성인권을 각성한 시기였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을 관장한 굵직한 뿌리는 여전히 유교이념이었다.²⁵⁾ 강매는 유교가 여성들에게 남긴 병폐로서 ‘집’을 잣대 삼아 집사람으로 전락시켜 집안일과 침묵, 가족들의 식탁을 준비하는 일 등을 종용한 점과 삼종지도(三從之道)의 관행에 여성을 종속 시킨 행태를 지목하여 이를 ‘여자제한주의(女子制限主義)’라고 비판했다.²⁶⁾

강매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개된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여성들의 직업선택이 대폭 확장되는 전기를 맞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여성들이 마차 인부, 자동차 운전, 전차 차장(車掌), 우편배달, 치안활동과 단속, 공원 관리, 철도업 종사 등 다양한 직종에 진출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에도 이러한 선진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신속하게 도입

24) 위의 글.

25) Jai Keun Choi, *Early Catholicism in Korea* (Seoul: Handl Publishing House, 2005), 218-241; Dong Sub Bang, *The Indigenous Mission of Pioneer Korean Christian* (UMI, 1996), 57; Henry G. Appenzeller, “Korea: The Field, Our Work and Opportunity,” Committee of Appenzeller Project, *The Appenzellers: How They Preached and Guided Korea into Modernization* (1) (Daejeon: Pai Chai University Press, 2010), 75.

26) 강매, “女子問題의 根本的 解決” 3-4. ‘삼종지도’란 여자가 일생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를 가리킨다. 즉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한 후에는 남편을,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자식을 따른다는 사상으로 『예기(禮記)』의 의례(儀禮) 상복전(喪服傳)에 기록되어 있다. cf. 김미영, “유교 가족 윤리와 ‘여성 정체성’·‘삼종지도(三從之道)’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33(2007), 47-71.

되어야 하고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²⁷⁾

IV. 결혼과 가정

「青年」에 수록된 결혼과 가정에 관한 논점들은 이석천의 “二十世紀의 家庭問題와 吾人の 責任”(1923년 3월), 근곡의 “結婚 前 青年男女를 爲 하여”(1923년 7·8월 합본), 한치진의 “家庭擁護論으로 본 家庭論”(1932년 1월), 이순택의 “最近 朝鮮의 平均 結婚年齡 研究”(1932년 5월) 등에 논점이 부각되어 있다. 이석천은 가정의 동요(動搖)·이혼·가정 방기·불화·사회의 죄악·자녀 출생률 등의 주제를, 근곡은 성결한 계약으로서의 결혼·결혼의 요건·결혼의 표준·수양 등의 관점을, 한치진은 가정반대에 비추어 가정설립의 정당성을, 이순택은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연령 등의 논제를 다루었다. 이 논지들은 다른 저작들과 비교해볼 때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등 사회과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석천은 가정의 동요·이혼·가정 방기·불화·사회의 죄악·자녀 출생률 등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그는 가정을 이룬 부부가 이 난제들을 깊이 인식하여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정을 개척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개인주의, 자유추구, 개개인의 인권 존중 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부모가 가정의 구심점에서 이탈하는 병리적 징후가 농후하며 열악한 가정 경제문제로 인해 가정의 부동성(浮動性, instability)이 심화되어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²⁸⁾ 특히 이혼문제에 있어서는 서양에서는 미국, 동양에서는 일본이 심각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했다. 미국

27) 강매, “女子問題의 根本的 解決,” 4.

28) 이석천, “二十世紀의 家庭問題와 吾人の 責任,” 「青年」 3/3(1924), 22.

의 경우 1902년부터 1906년까지 이혼사유들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가정의 방기가 38.5%, 음란(외도)이 15.3%, 폭력이 23.5%를 점한다고 소개했다.

이혼의 최대 이유를 오인(吾人)이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유(有)하니 그 조사에 의하면 (중략) 저처자(妻子)가 남자에게 대하여 한 것인데 그 최대의 이유는 방기, 간음, 잔폭(殘暴) 3중에 불과하니 예(例)하면 1902년부터 1906년 곳 4년 간 이혼안(離婚案)이 몇 가지 이유에 불출(不出)함을 자(茲)에 표시하건데 1. 가정 방기의 원인으로 이혼된 것: 천분지 385요 2. 간음의 원인으로 이혼된 것: 천분지 153이요 3. 잔폭의 원인으로 이혼된 것: 천분지 235요²⁹⁾

한편, 가정 방기에 대해서는 남편의 책임감 상실, 집을 비운 채 장기간 출타하는 일,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을 주요 원인들로 제시했다. 가정의 잦은 불화에 대해서는 재물을 탐하는 등 근본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결혼이 원인이라고 보았으며 결혼 전 남녀 간 인격적 교제와 애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와 가정을 일원적으로 통합하여 유기적 관계성을 논했으며 특히 남녀 간 음란한 성적 교류를 화류병(花柳病)과 동일시하여 비판했다. 자녀 출생률에 관해서는 결혼생활을 구속으로 간주하여 독신으로 지내거나 사업에 종사하느라 결혼이 지연되어 늦둥이를 보는 경우, 현저한 출생률 감소 등을 난제로 제시했다.³⁰⁾ 그러나 현대 가정에 내재되고 표면화된 문제점들을 지적했을 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의성

29) 위의 글, 23. 참고할 만한 연구로 김숙자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인의 이혼 청구원인을 분석했다. 남성 청구인의 경우에는 아내의 부정행위가 22.3%, 악의적 유기가 9.3%, 본인이 학대받은 사유가 4.2%로 나타났다. 여성 청구인의 경우에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22.9%, 악의적 유기가 10.1%, 본인이 학대받은 사유가 12.0%로 나타났다. 김숙자, “韓國의 離婚實態: 최근 10년간의 이혼실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14/1(1998), 93-117.

30) 이석천, “二十世紀의 家庭問題와 吾人の 責任,” 24-26.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근곡의 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논지는 결혼을 앞둔 남성과 여성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안으로서 결혼이 공동생활을 위한 '신성한 계약'이라고 간주한 대목이다. 그는 결혼이 신성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결혼을 약속한 남녀는 상호 완전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가령 남성 측에서 자신의 목적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일방적으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한다든지, 여성 측에서 향락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 남성을 이용하려 한다면 신성한 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혼은 남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어야 할 계약이라는 점에서 양가 부모의 종용으로 상합하는 강제 결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정략적으로 결합하는 매매계약으로서의 결혼, 부부가 우열의 관계를 형성하여 어느 한 편에 종속되는 결혼 등은 인류지대사(人倫之大事)를 그르쳐 가정에 화근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다.³¹⁾ 결혼의 가치와 의미를 언약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에 약정되는 하나의 견실한 약속이며 타인의 유익을 위한 동기, 무조건적인 약속, 불변의 사랑, 영원한 헌신, 대면과 용서 등을 함축한다.³²⁾ 근곡은 이상적인 가정을 지속하기 위한 최선의 비결은 부부 사이의 지속적인 애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애정이 식어지면 오히려 서로 원수지간으로 돌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폐단이 근본적으로 강제결혼과 매매계약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다만 시대사조에 흘녀 오직 연애 한 가지로써만 주요(主要)히 하여 그 애정이 영구히 계빈(繼續)〔지속됨〕-연구자 주치 못하고 냉각(冷却)한 채는 연애의 결합이 구수(仇讎)〔원수〕-연구자 주로 변하기 쉬우며 또한 부모가 전권(全權)하여 당사자의 불합의(不合意)한 것

31) 근곡, “結婚 前 青年男女를 爲 告야,” 「青年」 3/7(1924), 67-68.

32) 강인한, “언약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9(2005), 98-107. cf. 유재성, “언약결혼 이해와 그 관계적 특성,” 「복음과 실천」 59/1(2017), 321-349.

을 강제로 결혼해야 불화한 가정이 되게 함도 왕왕이 보난 사실이라.”³³⁾

한치진은 ‘가정옹호론’을 천명했다. 그는 통설적인 가정신성론(家庭神聖論)과 가정반대론을 대비(對比)하여 소개하면서 두 이론에 가정의 유익한 점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면모가 양면적으로 교차한다고 했다. 가정신성론은 가정이 사회질서의 기초이자 덕성의 발생지라는 점을 중시하지만, 가정반대론은 가정이 육욕적 향락과 교만으로 인해 고상한 민족성과 고결한 정서를 저해한다는 부정적 개념이다. 그는 가정의 유익한 점들로서 자손번성, 실업발전과 사유재산, 도덕의 산실 등으로 보았으며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점들로서는 조상 및 우상숭배, 파쟁(派爭), 전제정신(專制精神) 등이라고 파악했다.³⁴⁾ 그는 가정신성론과 가정의 유익한 점들에 기초하여 별도로 자신의 가정옹호론을 제시했다. 그는 가정신성론과 가정반대론이 보여주듯이 가정에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공존하지만 다음 다섯 가지의 필요충분조건들을 갖춘다면 이상적인 가정이 확립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인생의 태반(太半) 고통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략) 이하 조건에 기초한 가정이라야 완만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일반의 옹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적당할 물질적 수입 (2)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 (3) 부부의 동등권 (4) 순결한 남녀 (5) 가정생활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여가”³⁵⁾ 특별히 가정경제의 기반이 되는 물질문제와 관련하여 한치진은 다른 저서 『基督教人生觀』(1934)에서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를 강조했다. 만일 물질을 속된 것으로만 여겨 경시할 경우 오히려 질병문제, 가정의 파탄, 도덕성 부패, 영적 생활 파괴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³⁶⁾ 이 관점은 물질이 인격을 파괴하는

33) 근곡, “結婚前 青年男女를 爲 婚야,” 71.

34) 한치진, “家庭擁護論으로 본 家庭論,” 『青年』 12/1(1932), 12-13.

35) 위의 글, 13.

36) 한치진, 『基督教人生觀』(서울: 철학연구사, 1934), 180-181. Cf. 안수강, “한치진의

빈곤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한 베넷(John C. Bennett)의 신념과도 견해를 같이한다.³⁷⁾

이순택은 조혼 풍습을 엄두에 두어 조선통독부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 결혼연령을 분석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평균 결혼연령을 조사함으로써 결혼상황, 사회적 경제적 상황 추이에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독특한 연구를 시도했다. 그는 소화(昭和) 3년(1928년) 중 조선통독부 통계부(統計部) 자료를 활용했다. 한국인의 결혼연령은 남성 22.8세, 여성 19.9세로 나이 차이는 2.9세이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남성은 29세, 여성은 25세로 나이 차이는 4세로 나타났다.³⁸⁾ 이순택은 본 연구가 단순히 문제 자체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히면서도 서양에 비해 한국의 조혼 현상과 나이 차이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세계 각국의 평균 결혼연령과 비교할 때에 남자는 6세로부터 7세까지 여자는 5세 이상 6세까지니 (중략) 조혼이라는 비방을 면할 수 없는 것이오 부처(夫妻)의 결혼연령의 차(差)에 있어서도 국제적 평균에 비하여 상거(相距)가 갓가움다 [나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연구자 쥐는 것을 알 수가 있다.”³⁹⁾ 참고로,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는 『講臺寶鑑』(1926)에 수록된 설교문 “夫婦의 道”를 통해 미성자(未成者)의 결혼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가르쳤고,⁴⁰⁾ 1922년도에 발행된 장로교단의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에 의하면 혼례조례 규정 제4항에서 혼인적령기와 관련하여 조혼을 금하며 부모와 동거할 시에는 부모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주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基督教人生觀』을 통해서 본 1930년대 한국교회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6(2017), 32.

37) John C. Bennett, “경제생활의 목표에 대한 신학적 개념,” 맹용길 편, 『기독교사회윤리』 (서울: 기독교문사, 1983), 279.

38) 이순택, “最近 朝鮮의 平均 結婚年齡 研究,” 11/5(1931), 6-9.

39) 위의 글, 9.

40) 길선주, 『講臺寶鑑』(平壤: 東明書館, 1926), 127.

또 제5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부권(父權)을 빙자하여 강제로 혼처(婚處)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시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⁴¹⁾

V. 유소년 성교육 및 태아의 성별 조작 문제

이동과 청소년 층 성교육 및 태아의 성별 조작 문제와 관련된 논점들은 이명혁의 “男兒나 女兒가 生物學 上 어떻게 決定되는가”(1931년 4월)와 이갑수의 “性教育에 對하여”(1931년 4월) 등에 논점이 부각되었다. 이명혁은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성 비율과 조화에 주목했으며 유교사상의 잔재인 남아 선호사상의 폐단을 지적했다. 이갑수 역시 유교의 예법을 엄두에 두어 성문제를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성 이해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동 시기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편의 글은 학술서적으로 분류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담았으며 구조와 형식면에서도 상당히 완성도를 갖춘 글들이다. 당시 한국은 유교적 전통과 윤리관에 입각하여 성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했고 서구의 영향을 받아 급격하게 개방된 성 풍조는 성에 대해 양극적 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 글들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성문화를 선도하는 가르침을 담았다.

이명혁은 “男兒나 女兒가 生物學 上 어떻게 決定되는가”를 논증한 후 두 가지 난제를 제기하여 우려를 표했다. 두 가지 난제란 동양의 전통적인 남아 선호사상과 과학의 힘(정자에 특정한 약물을 투여하여 활동력을 조작함)을 빌어 인위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조작하려는 일부 의학계의 동

41) Charles A. Clark 편, 『朝鮮예수교長老會憲法』(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2), 222-225.

향이다. 이명혁은 세포, 난자, 정자, 수정작용, 정자의 X염색체(여아 잉태) 등에 관한 지식을 자세하게 소개한 후 남아와 여아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성이 결정되는지를 대비(對比)하여 성의 신비를 논했다. 그는 윤리적 관점에 주목하여 남아 선호사상과 태아의 성별 조작, 이 두 가지 사안이 당대에 직면한 절박한 난제라고 보았다. 실제로 현대의학은 남성의 정액을 분리하는 기술을 통해서 인공수정 태아의 성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깊이 성찰해야 할 민감한 사안이다.⁴²⁾ 그는 인위적으로 태아의 성을 조작할 경우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해 점차 여성 인구가 줄어들 것이며 그 결과 남녀의 성비율이 파괴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동양 제국(諸國)에는 인습적으로 남존여비의 풍습이 유(有)한 동시에 남 자식(男子息)에 대하여는 일종 재난과 갖치 녀여 만흔 행복, 효도와 희망을 엮고져 함으로 일반적으로는 남 자식 두기를 바라 고 여 자식은 타인에게 주는 짓출가외인의 관점-연구자 주의로만 생각하여 원치 아니하였다. (중략) 여아만 낳코 남아를 낳치 못하는 경우에는 자연히 가내에서 행세를 못할 썬더러 남편의 막심한 구박과 시부모의 업심까지도 면 치 못하게 되니⁴³⁾

정자에 엷혀한 약을 가(加)하여 활동력을 약하게 할 것 같으면 (중략) 남아

42) <https://v.daum.net/v/19930630112800589?f=o>. 2023년 12월 5일 접속. 기사제목 “영국(英國) 의사들, 태아(胎兒)의 성선택기술 반대 결의”(1993년 6월 30일) cf. 편집부, “胎兒의 性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마케팅」 5/3(1971), 94-97; 조영임, 유동렬, “妊娠時 胎兒의 性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6/1(1993), 153-161.

43) 이명혁, “男兒나 女兒가 生物學 上 어떻게 決定되는가,” 「青年」 11/4(1931), 5. 조선시대에 적용된 아내를 내칠 수 있는 칠거지악에는 부모 불순종, 음란함, 투기함, 유악질(有惡疾, 불치병), 말이 많음, 절도죄를 포함하여 ‘무자(無子)가 포함되었다. 박은정, “〈육환기봉〉에 나타난 칠거지악 논쟁과 부부 담론,” 「고전문학과 교육」 39(2018), 110.

를 결정짓는 정자가 수정할 기회를 만히 가지게 될 것이다. 독일의 과학자도 차(此)에 대한 실험을 노력하여 본 결과 생남(生男) 생녀(生女)를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정하면 동양과 갖치 여야를 비천이 녀이고 남아를 귀중히 생각하는 경향에 있서 남녀 수가 평형되지 못하고성비 불균형-연구자 주 일시적으로는 남자 천지(天地)가 될 의문도 업지 아니하다.⁴⁴⁾

이갑수는 가정의 부모와 학교의 교사들이 유교적 사고에 입각하여 성교육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만 인식하여 도외시하는 바람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탈행위를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성교육 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체계성 있는 성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극장에 출입하거나 악서(惡書)들을 탐독하여 성지식을 습득하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독일 뮌헨 지방 학교위원회에서 칼 그라쓰만이 행한 강연내용에 주목하여 아동보호법 도입, 개개인 성격교육, 성욕의 감각, 성욕생활, 부모의 성교육 담당, 의사들의 부모 성교육, 성교육 범위와 연령, 성교육의 학교 교과과정 도입, 학교에서의 문제아 관리, 생식(生殖) 생활의 위험 등 열 가지의 과업들을 소개했다.⁴⁵⁾ 그는 성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월경, 임신, 분만 등에 관한 기초지식들을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⁴⁶⁾ 그는 열 가지의 항목들을 정선하여 한국 상황에 적합한 사안들을 네 가지로 제시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의(校醫)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의사가 주관하는 성교육이 별도로 시행되

44) 이명혁, “男兒나 女兒가 生物學 上 어떻게 決定되는가,” 6.

45) 이갑수, “性教育에 對하여,” 『青年』 11/4(1931), 2-3.

46) 위의 글, 4.

어야 하며, 보통학교(普通學校)·중학교·실업학교에서 정규 학과목으로 도입하여 교육할 것을 촉구했다.

1. 가정에서는 부모 양친이나 또는 이에 경험 있는 매형 그러치 아니하면 그의 대리인 되는 분이 그 자녀 제질(弟侄)의게 항상 성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중략) 가라쳐줄 것이요 2. 학교 또는 기숙사에서는 담임선생이나 또 감독선생이 역시 그 아동 또는 소년의게 성에 대한 지식을 가라쳐줄 것이요 3. 가정의 부모 형제이나 또는 학교선생이 성에 관한 지식을 의사의게 즉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에 다니는 의사, 학교로 말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교의(校醫)에게 배흘(배울-연구자 주 필요가 있는 것이요 4. 우리 조선에서도 보통학교 5, 6학년 또는 중학교 급(及) 실업학교 갓흔같은-연구자 주 중등학교에는 일정한 과정[지정된 교과목으로 도입-연구자 주]으로 작성하여 성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늦기며느끼며-연구자 주 또는 주창하는 바입니다.⁴⁷⁾

참고로, YMCA뿐만 아니라 기독교면려회에서 1920년대에 성교육과 관련하여 대중적으로 계몽운동을 펼쳤다. 김윤경은 「眞生」에 수록된 “性教育의 實際”(1929년 5월)에서 성교육과 성적 위생관리, 아동 강화(講話)를 논했으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성교육, 도덕성, 질병들, 개체 발생, 성교육과 관련된 서적들, 강연, 활동사진 및 전람회 등을 설명했다. 그는 “여성운동이니 부인해방이니 공창(公娼) 폐지니 하지마는 사실은 가정에, 학교에, 사회에 이 성교육운동이 먼저 널리, 또 성(盛)히 보급되고서야 해결될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⁴⁸⁾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남녀 양성에 대하여 성실하게 가르쳐야 하고 정도(正道)를 지키도록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논지는 종래 ‘남녀 7세 부동석

47) 위의 글.

48) 김윤경, “性教育의 實際,” 「眞生」 5/3(1929. 5), 30-33.

(不同席)으로 대변되던 성에 관한 대화나 상담을 무조건 수치스런 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바른 성지식을 교육하여 건전한 성생활을 지향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1935년에 발행된 주목할 만한 문헌으로 김활란, 유각경 등과 더불어 한국 YWCA를 개척한 김필례의 『性教育』이 있다. 김필례는 이 저서에서 성과 결혼문제를 논했으며 성교육의 필요성, 사춘기, 정당한 교제와 난잡한 행동, 약혼과 결혼의 바른 길, 불행한 결혼 생활, 산아 제한, 독신생활, 정당하지 못한 성생활, 성과 사회,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등을 다루어 단행본으로 출판했다.⁴⁹⁾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1920년대와 1930년대 YMCA 기관지 「靑年」에 나타난 여성관을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직업선택과 사회진출, 결혼과 가정, 유소년 성교육 및 태아의 성별 조작 문제 등 네 분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다. 하위주제별 여섯 분야의 주요논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논점들로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실업계에 진출하여 경제적 독립을 획득할 것(이대위), 유교사상으로 만성화된 남존여비와 남녀유별 의식을 타파할 것(송진우, 장웅진), 여성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고양할 것(장웅진), 윤리적 관점에서 여교사들의 검소한 생활과 옷차림(무명의 여교사)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여성의 직업선택과 사회진출에 관한 논점들로서 남녀의 평등성과 여성 인권을 고양할 것, 여성의 사명을 고취할 것(김일제), 남녀 모두

49) 서신혜, “1920~30년대 성교육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자 김필례의 〈성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8(2017), 218. 서신혜는 김필례의 『性教育』 연구에서 성욕을 고결한 인격으로 조절할 것, 사회를 대상으로 공헌하는 생산적인 책무를 수행할 것, 결혼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결합으로 추구할 것, 결혼의 법률적 논점 등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같은 논문, 207-238.

에게 동등하게 사역의 기회를 부여할 것, 여성의 사역에 관심을 가질 것, 여성의 다양한 직업선택과 사회진출을 장려할 것, 유교적 사고와 제도적 장치를 일소하고 여자제한주의를 철폐할 것(강매)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결혼과 가정에 관한 논점들로서 가정의 동요(動搖)·이혼·가정 방기·불화·사회의 죄악·자녀 출생률 등의 난제를 해결할 것(이석천), 남녀 간 성결한 계약으로서의 결혼을 준비할 것(근곡), 가정옹호론에 입각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것(한치진), 조혼 풍습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결혼 연령을 고려할 것(이순택)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유소년 성교육 및 성(性) 조작 문제에 관한 논점들로서 성의 신비를 논했으며 남녀의 성 비율이 균형을 갖출 것(이명혁),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의가 교육을 담당할 것, 의사가 부모와 교사에게 성교육을 시행할 것, 보통학교·중학교·실업학교에서 성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도입하여 교육할 것(이갑수) 등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논점들을 바탕으로 한국기독교 여성운동과 관련하여 현재적 함의와 적용점들을 다음 세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도 못하던 시기에 다수의 호소력 있는 글들이 「靑年」에 수록되고 전파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대적 간극이 상당하고, 민주적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여성비율, 한국교회의 지도층 인사들과 직분자들 중 여성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성의 실질적인 참정권과 영향력이 인정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여전히 성찰해야 할 점들이 많다. 추후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외침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윤리적 관점에서 여성인권과 지도력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둘째, 여성인권 논의 등 기독교의 여성이해와 옹호는 현실적으로 선교

적 측면에서 지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교회가 윤리적 공동체로 인정받고 지지를 받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급속한 복음전파와 교회성장에는 여성이해, 여성인권, 여성교육, 여성의 사회참여 등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다. 오늘날 침체기에 접어든 한국교회에서는 여성관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위상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지런히 경주해야 할 것이며 여성이 사역해야 할 입지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과거 「靑年」을 통한 여성관련 담론은 단순히 추상적 혹은 명목적인 논의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대안제시형 여성론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론과 실체는 한 지평 위에 불가분리의 유기적 체계로 병립되어야 한다. 기독교윤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윤리 이론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합리성과 적실성을 갖춘 대안제시형의 담론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靑年」에서 집필자들이 천명한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직업선택과 사회진출, 결혼과 가정, 유소년 성교육 및 태아의 성별 조작 문제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추구되어야 할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강두송. “婦人問題.”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43-57.
- 강매. “女子問題의 根本的 解決.” 「青年」 1/4 (1921), 2-4.
- 강인한. “언약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9(2005), 79-112.
- 근곡. “結婚前 青年男女를 爲하야.” 「青年」 3/7(1924), 67-71.
- 길선주. 『講臺寶鑑』. 平壤: 東明書館, 1926.
- 김미영. “유교 가족 윤리와 ‘여성 정체성’-‘삼종지도(三從之道)’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33(2007), 47-71.
- 김숙자. “韓國의 離婚實態: 최근 10년간의 이혼실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14/1(1998), 93-117.
- 김윤경. “性教育의 實際.” 「眞生」 5/3(1929. 5), 30-33.
- 김일제. “現代와 女子의 使命.” 「青年」 3/2(1924), 7-9.
- 김지환. “女子教育에 對하여 一言.” 「眞生」 5/9(1929), 25-28.
- 김필수. “青年」發行的 首辭.” 「青年」 창간호(1921), 1.
- 박은정. “〈옥환기봉〉에 나타난 칠거지악 논쟁과 부부 담론.” 「고전문학과 교육」 39(2018), 99-135.
- 서신혜. “1920~30년대 성교육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자 김필례의 〈성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38(2017), 207-238.
- 송진우. “男女交際에 對한 名士의 竟見.” 「青年」 1/1(1921), 20.
- 안수강. “이홍주(李泓周)의 도덕관 분석-그의 良心의 威力(1922)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2020), 133-160.
- _____. “일제강점기 YMCA의 노선과 현재적 함의 고찰: 기관지 「青年」(1921-1940)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9(1922), 631-667.
- _____. “한치진의 『基督教人生觀』을 통해서 본 1930년대 한국교회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6(2017), 241-285.
- _____. “1920년대 초 강두송(姜斗松) 목사의 여성인권 신장에 관한 담론 분석: 그의 “婦人問題”(1922)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59(2021), 169-208.

- 유재성. “언약결혼 이해와 그 관계적 특성.” 『복음과 실천』 59/1(2017), 321-349.
- 이갑수. “性教育에 對하야.” 『青年』 11/4(1931), 2-4.
- 이대위. “女子의 經濟的 獨立.” 『青年』 2/1(1922), 6-10.
- _____. “吾人の 理想하는 今後 朝鮮의 女子運動.” 『眞生』 5/9(1929), 2-6.
- 이명혁. “男兒나 女兒가 生物學 上 어떻게 決定되는가.” 『青年』 11/4(1931), 5-6.
- 이석천. “二十世紀의 家庭問題와 吾人の 責任.” 『青年』 3/3(1924), 22-28.
- 이순택. “最近 朝鮮의 平均 結婚年齡 研究.” 11/5(1931), 6-9.
- 이장형. “「청년」 문헌해제 및 신학적, 기독교윤리적 의미.” 『기독교사회윤리』 55(2023), 265-288.
- 일여교원. “女敎員의 外華.” 『青年』 6/2(1926), 29-34.
- 장원종, 김동현, 이한구. 『職業과 倫理』.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장웅진. “男女交際에 對한 名士의 竟見.” 『青年』 1/1(1921), 20-22.
- 조영임, 유동렬. “妊娠時 胎兒의 性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6/1(1993), 153-161.
- 편집부. “胎兒의 性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마케팅』 5/3(1971), 94-97.
- 한치진. “家庭擁護論으로 본 家庭論.” 『青年』 12/1(1932), 12-13.
- _____. 『基督教人生觀』. 서울: 철학연구소, 1934.
- 田汝康. 이재정 역.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서울: 예문서원, 1999.
- Appenzeller, Henry G. “Korea: The Field, Our Work and Opportunity.”
Committee of Appenzeller Project, *The Appenzellers: How They Preached and Guided Korea into Modernization*⁽¹⁾. Daejeon: Pai Chai University Press, 2010, 70-85.
- Bennett, John C. “경제생활의 목표에 대한 신학적 개념.” 맹용길 편. 『기독교사회윤리』. 서울: 기독교문사, 1983, 278-314.
- Bishop, Isabella B. *Korea and Her Neighbours*.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서울: 도서출판살림, 1999.
- Bang, Dong Sub. *The Indigenous Mission of Pioneer Korean Christian*. UMI, 1996.
- Clark, Charles A. 편. 『朝鮮예수敎長老會憲法』.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2.
- Choi, Jai Keun. *Early Catholicism in Korea*. Seoul: Handl Publishing House,

2005.

<https://v.daum.net/v/19930630112800589?f=o>. 2023년 12월 5일 접속. 기사제목
“영국(英國) 의사들, 태아(胎兒)의 성선택시술 반대 결의”(1993년 6월 30일).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30일

심사개시일: 2023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02일

• 국 문 초 록 •

본고에서는 YMCA 기관지 「青年」에 나타난 여성관을 고찰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직업선택과 사회진출, 결혼과 가정, 아동과 청소년 성교육 및 태아의 성별 조작 문제 등을 분석했다. 여성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던 시기에 호소력을 갖춘 여러 글들이 「青年」에 게재되고 전파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논점들로서 여성의 실업계 진출과 경제적 독립, 남존여비 의식 타파, 여성교육의 활성화, 여교사들의 검소한 생활과 옷차림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여성의 직업선택과 사회진출에 관한 논점들로서 남녀평등과 여성인권 고양, 여성의 사명 고취, 사역의 기회 부여, 다양한 직업선택과 사회진출 장려, 유교적 사고와 제도 일소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결혼과 가정에 관한 논점들로서 가정의 동요(動搖)·이혼가정 방기·불화 등의 난제 해결, 성결한 계약으로서의 결혼 준비, 이상적인 가정 구현, 합당한 결혼 연령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아동과 청소년 성교육 및 태아의 성별 조작 문제에 관한 논점들로서 남녀 성 비율의 조화, 부모·교사교의(校醫)의 아동 성교육,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학교에서의 성교육 교과목 채택 등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기독교청년회, 「青年」, 여성관, 여성의 지위, 여성의 사회진출, 남녀평등
